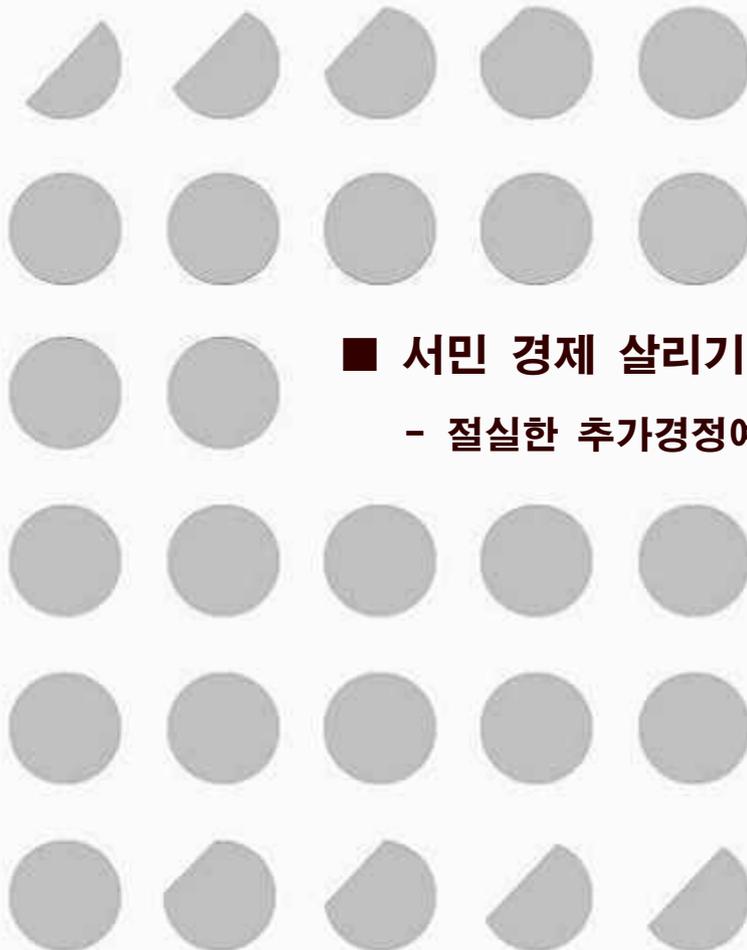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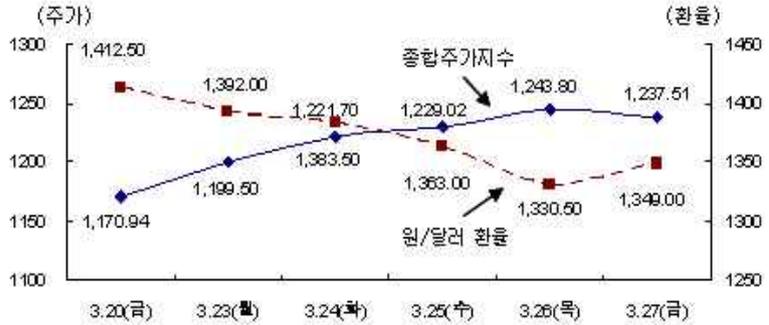


■ 서민 경제 살리기 시급하다

- 절실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20~3.27)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서민경제 살리기 시급하다	- 절실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1
주간 경제 동향	10
□ 실물 부문 : 소비자 심리 불안 지속		10
□ 금융 부문 : 금융시장 급속히 안정세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정 유 훈 선 임 연 구 원 (3669-4014, youhun@hri.co.kr)
 □ 금 융 경 제 실 : 현 석 원 연 구 위 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Executive Summary

□ 서민 경제 살리기 시급하다

- 절실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1. 조사 개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실태 파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3월 9일 ~ 3월 13일 (5일간) 전국광역대도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에 따른 전화 설문 조사를 하였다.

2. 조사결과에 나타난 특징

본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서민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마련한 추경예산의 빠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서민의 대다수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덜 심각하다고 느끼는 서민이 5.1%에 불과한데 반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서민은 69.3%에 달했다.

둘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경기가 가장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77.5%가 더 심각하다고 했으며,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70.4%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셋째, 서민의 대다수가 현재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응답자 중 61.0%가 경기 회복 시점을 201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경기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넷째,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소득의 감소폭이 크다. 자영업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저소득층은 실직과 급여삭감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자영업에서 급여소득자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자녀 학비 증가로 인해 서민의 네 명 중 한 명꼴로 가계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등으로 두 명 중 한 명 꼴로 가계 빚이 늘어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0대의 1/3 정도가 가계 빚이 늘었고, 주요 원인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 외에 자녀의 학비 증가였다.

여섯째, 소비 지출에 계층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줄었다고 한 비중은 30.2%가 되었지만, 40.3%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여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저소득층, 고령자층에서는 지출 축소 비중이 높았고, 직장인과 고소득층에서는 늘어난 비중이 오히려 높았다.

일곱째, 현재 경제 위기 극복 노력으로 서민들은 소비 절약 등 생활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앞으로 내수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인 78.3%의 서민들이 앞으로 소비와 생활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덟째, 현재 정부의 서민 경제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를 넘는 62.0%가 현 정부의 서민 경제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홉째,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고소득층일수록 상품쿠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56.8%로 높게 나왔으나,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현금 지급을 원하는 비중이 6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상품쿠폰을 원하는 비중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1. 조사의 개요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09년 3월 9일 ~ 3월 13일(5일간)
- 조사 방식 :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 설문을 통해 전국 625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광역시도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	2	3	4	5	6	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조사의 목적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경제의 실태 파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응답자의 특성

- (성별) 남성 323(51.8%), 여성 300(48.2%)
- (직업별) 직장인 207(33.2%), 자영업자 142(22.8%), 전문직/공무원 43(6.9%), 학생 43(6.9), 기타/무직 56(9.0%)
- (연령별) 20대 127(20.4%), 30대 159(25.5%), 40대 148(23.8%), 50대 97(15.6%), 60대 이상 92(14.8%)
- (소득수준별) 2천만원미만 142(23.5%), 2~4천만원미만 271(44.8%), 4~6천만원미만 137(22.6%), 6~8천만원미만 34(5.6%), 8천만원이상 21(3.5%)
- (자산수준별) 1억원미만 211(35.5%), 1~3억원미만 193(32.4%), 3~5억원미만 95(16.0%), 5~10억원미만 74(12.4%), 10억원이상 22(3.7%)

2. 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징

○ (현재의 경기 판단)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위기의식이 강함

- (직업별)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제위기감이 가장 심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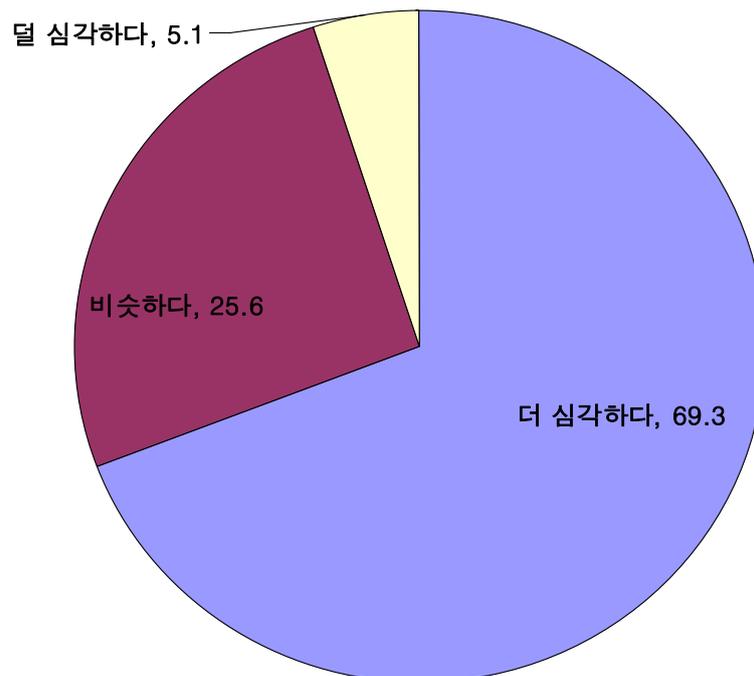
· 자영업자의 경우,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비중이 7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반해, 공무원의 경우, 53.3%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임

- (소득별) 저소득층일수록 심각성을 크게 느낌

· 2천만원 미만의 소득자군은 70.4%가 현재의 위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2~4천만원미만의 소득자는 74.2%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

< 현재의 경기침체외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어떻게 느끼는가 >

(단위 : %)



○ (경기 회복 시기 예측) 대다수가 2011년 이후에나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현재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경기 회복시기에 대한 서민들의 평가는 올해와 내년이 39.0%인데 반해, 2011년 이후라고 답한 의견은 61%에 달함

- (연령별) 5,60대의 고연령층에서 경기의 조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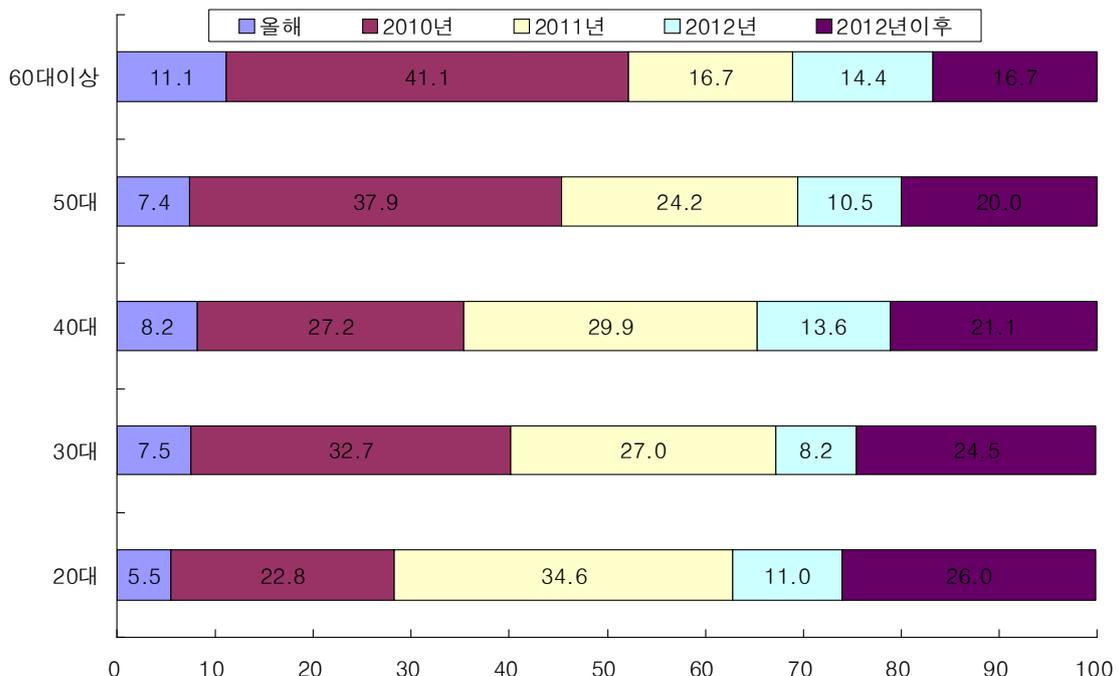
· 2010년 이전에 경기 회복될 것으로 보는 비중이 60대 이상은 52.2%로 과반수를 넘었고, 50대는 45.3%에 달한데 반해, 20대에서는 28.3%에 불과함

- (직업별) 경기 회복에 가장 비관적인 직장인들

· 직장인의 경우, 2010년 이전에 회복된다고 보는 비중은 37.6%로 자영업자(41%), 공무원(4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경제 상황이 언제쯤 호전될 것인가 >

(단위 : %)



- (가계 소득)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 소득의 감소는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났고, 감소 원인으로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과 사업 실패가 압도적 이었으며 저소득층에서는 실직과 급여삭감으로 나타남
- (가계의 절반이 소득 감소) 전체적으로는 1년전 수준과 비교한 소득이 '늘었다'는 비중이 6.1%에 불과한 반면, '줄었다'는 비중은 45.9%에 달함
- (소득별)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감소 비중이 높아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별로 볼 때, 2천만 원 미만(59.2%), 4천만원 미만(46.1%), 6천만원 미만(37.2%), 8천만원 미만(20.6%) 순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이 감소했다는 비중이 작아짐
- (소득 감소 원인) '매출 감소 및 사업실패(49.5%)'와 '급여삭감(19.7%)'이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자영업에서 급여소득 자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함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및 사업 실패에 의한 소득 감소가 84.6%에 달함
 - 연 2천만원 미만 저소득군의 소득 감소 원인이 실직과 급여삭감이 각각 19.5%, 17.1%로 나타나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년전 수준과 비교한 소득 수준 >

(단위 : %)

	늘었다	줄었다	비슷하다
전체	6.1	45.9	48.0

< 소득 감소의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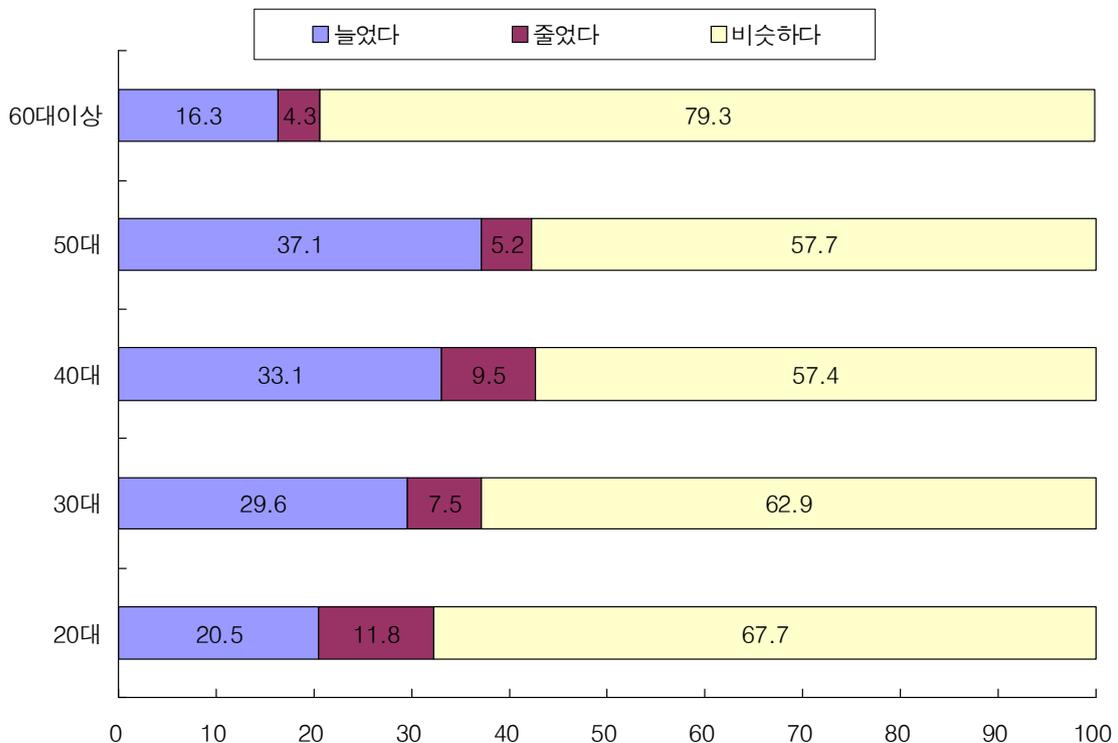
(단위 :%)

	실직	급여 삭감	부동산 임대소득 감소	주가하락 및 펀드손실	이자소득 감소	매출감소 및 사업실패	기타
전체	10.4	19.7	3.9	11.1	2.2	49.5	3.2

- (가계 부채) 전체적으로는 서민의 1/4이 가계 빚이 늘었고, 특히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거의 1/2 이, 연령별로는 4,50대의 1/3 정도가 가계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가계의 1/4이 부채 증가) 전체적으로는 1년전 수준과 비교한 부채는 '줄었다'는 비중이 8.2%에 불과한 반면, '줄었다'는 비중은 27.7%에 달함
- (직업별) 자영업자의 경우 거의 절반 수준인 45.8%가 부채가 증가함
 -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가 '늘었다'는 비중이 45.8%로 '줄었다'는 비중 6.3%를 압도하는 수치를 나타냄
- (연령별) 4,50대에서는 1/3이 부채가 증가함
 - 40대, 50대의 각각 33.1%, 37.1%가 1년전 수준과 비교해서 부채가 증가함

< 1년전 수준과 비교한 가계 부채(연령별) >

(단위 :%)



- (가계 부채 증가 원인) 전체적으로 대출이자 부담 증가가 가장 높았고, 이외에 생계비와 학자금 대출 증가도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는 대출이자 부담증가가 30.5%, 생계비 증가가 16.3%, 학자금 대출 증가가 17.0%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50대에서는 자녀의 학비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22.7%, 24.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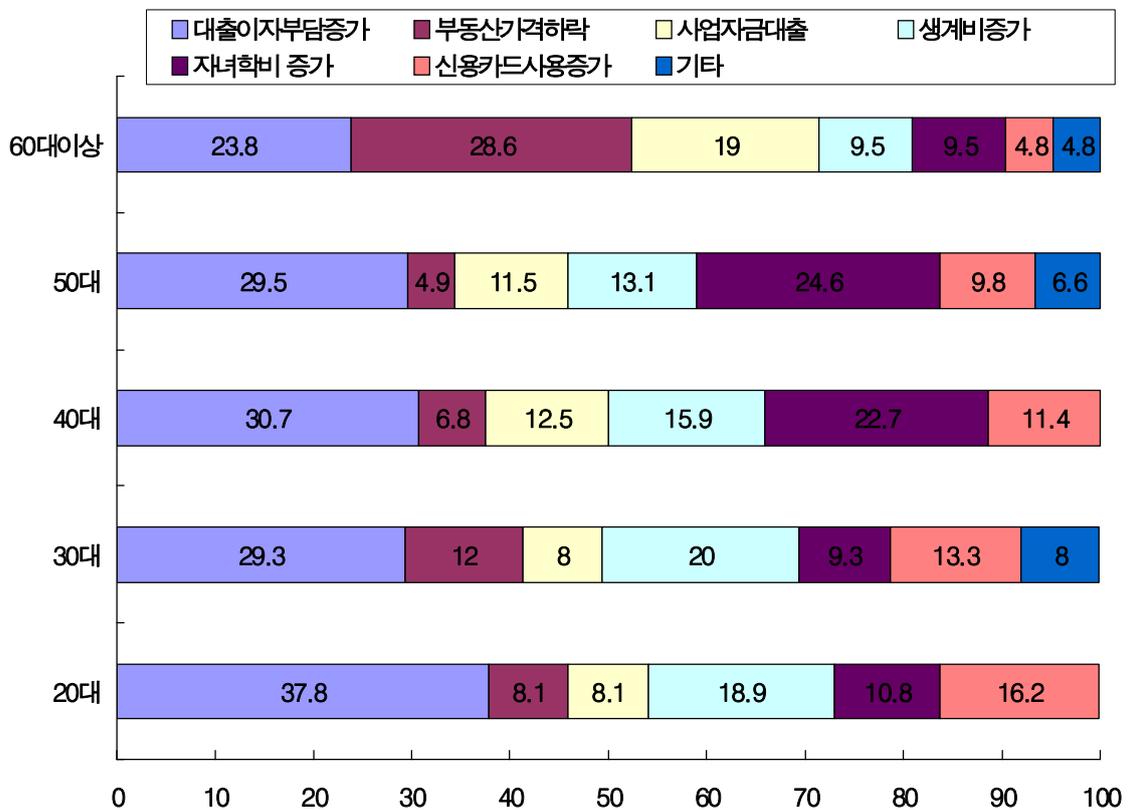
<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 >

(단위 :%)

	대출이자 부담증가	부동산 가격하락	사업자금 대출	생계비 증가	자녀의 학비 증가	신용카드 사용 증가	기타
전체	30.5	9.6	11.0	16.3	17.0	11.7	3.9

< 연령별 가계 부채 증가 원인 >

(단위 :%)



- (가계 지출) 가계 지출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2%로 나타났으나,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40.3%로 나타나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직업별) 자영업자의 지출 축소 비중이 가장 높음
 - 직장인의 경우 지출을 축소한 비중은 24.6%인데 반해 자영업자의 경우 37.3%로 축소
 - (연령별) 나이가 많을수록 지출 축소 비중이 높아짐
 - 지출을 줄였다고 하는 20대의 응답 비중이 23.6%이고 나이가 들수록 지출 축소 응답 비중이 늘어 60대 이상의 경우, 38%에 이름
 - (소득수준별) 저소득 계층일수록 가계 지출 축소가 크게 나타남
 - 2천 만원 미만의 저소득자군의 경우, 34.5%가 가계 지출을 줄였다고 한 반면, 6~8천만원의 소득자는 17.6%로 나타남
- (경제 위기 극복 노력) 소비 절약 등 생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내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전체적으로 소비절약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57.4%, 주택규모 등 생활규모 축소가 20.9%에 이르러, 경제 활동 확대라고 응답한 8.9%를 압도함
 - (연령별) 소비절약은 주로 20대가, 생활규모 축소는 주로 50대에서 나타남
 - 20대의 60.4%가 '소비 절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0대에서는 생활규모 축소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 저소득층에서는 소비절약 뿐만 아니라, 생활규모 축소까지 높게 나타남
 - 저소득자일수록 부업 활동 확대 등을 통한 극복보다 축소지향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나, 부업 활동 확대 비중이 7.1%에 불과했으나, 6-8천 만원 소득자는 12.2%에 달함

○ (현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 현정부의 서민 경제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현정부 정책의 서민경제 안정 대책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62.0%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7.9%보다 높게 나옴

○ (현정부에 바라는 정책) 생계비, 대출 지원보다 물가 안정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높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옴

- 가계 경제 부담 완화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와 물가 안정이 24.5%, 공공요금 동결이 22.0%, 국민연금·의료보험의 부담경감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도 11.6%로 높게 나옴

<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부 정책은 >

(단위 : %)



○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고소득층일수록 상품쿠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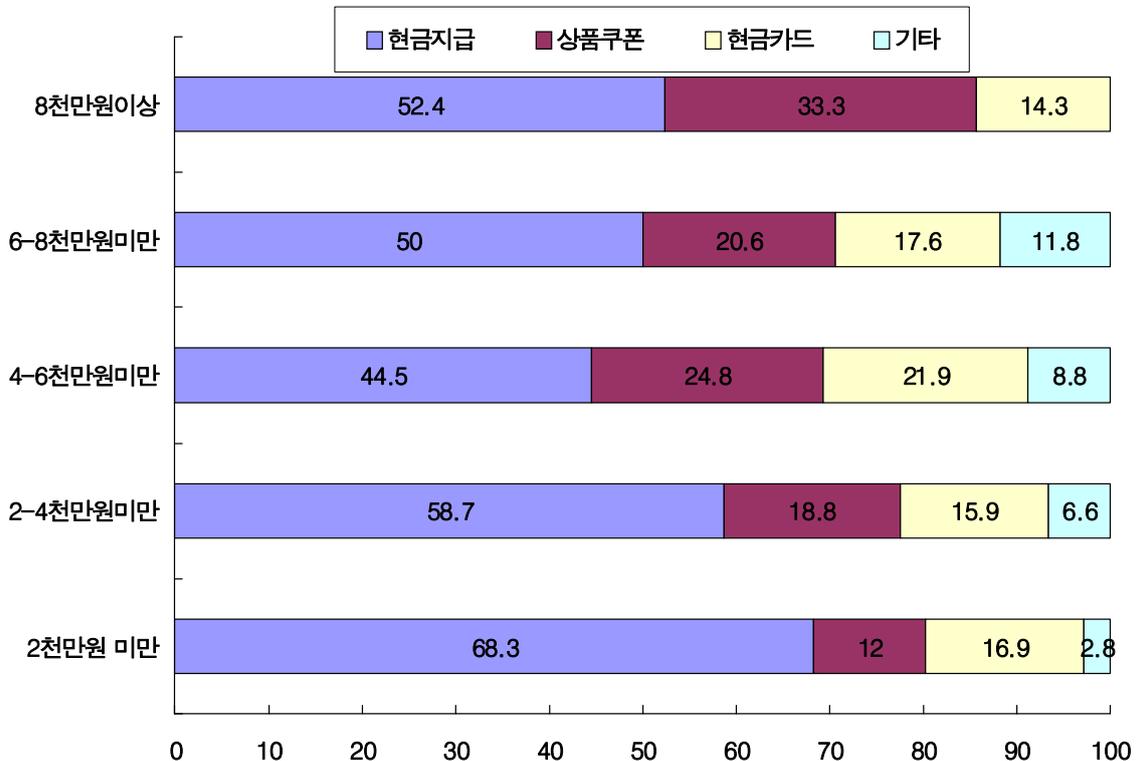
- 전체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56.8%로 높게 나왔으며, 상품 쿠폰과 현금 카드는 각각 19.5%, 17.4%로 나타남

- (소득별) 저소득층은 현금지급을 고소득층은 상품쿠폰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중 현금 지급이 68.3%로 높게 나타났고, 상품쿠폰은 12.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상품쿠폰이 33.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현금 지급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 가장 효과적인 재정 지원 방안은 >

(단위 : %)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소비자 심리 불안 지속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4로 전월보다 1p 낮아져 3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됨

- 경기 판단 및 전망을 나타내는 9월 현재경기판단CSI는 38에서 35로 3p 하락, 향후경기전망CSI는 65에서 64로 1p 하락하여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임
- 물가 및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물가수준전망CSI는 128에서 142, 금리수준전망CSI는 89에서 92로 상승하여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됨
- 반면에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환율상승 효과가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4.1%에서 4.2%로 0.1%p 상승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경기	경제성장률	5.0	28(-35)	58(0.8)	48(0.8)	38(0.5)	-34(-5.6)	-	-	
	수요	소비재판매	5.2	0.9	4.4	2.9	1.4	-4.6	-3.1	-
		설비투자추계	9.2	-3.2	-0.7	-0.5	5.3	-16.2	-25.3	
		건설수주	23.6	-9.0	-3.7	-6.1	-22.7	-6.5	-15.0	-
		수출	14.1	13.6	17.4	23.1	27.0	-9.9	-33.8	-
	공급	광공업생산	6.8	3.3	10.6	8.6	5.6	-11.3	-25.6	-
		취업자수 (만명)	2,343	2,358	2,305	2,387	2,373	2,367	2,286	2,274
		실업률	3.2	3.2	3.4	3.1	3.0	3.1	3.6	3.9
수입		15.3	22.0	28.9	30.5	42.8	-9.0	-31.9	-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60	-16	-52	-1	-86	75	-136	-	
	무역수지 (억\$)	146	-132	-66	-3	-79	15	-34	-	
물가	생산자물가	1.4	8.4	5.1	9.0	11.3	8.0	4.7	4.4	
	소비자물가	2.5	4.6	3.8	4.8	5.1	4.5	3.7	4.1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금융시장 급속히 안정세

○ (해외 금융 시장) 미 달러화 주요통화대비 강세 전환

- **금리**: 美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공급 계획 및 英 재무부의 40년 만기 국채입찰 부진 등으로 향후 미 국채공급물량 흡수 능력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며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국채 10년물 : 2.63→2.74%)
- **환율**: 엔화는 뉴욕증시 상승에 따른 안전통화로서 달러화자산 수요가 증대되며 상당폭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도 ECB의 추가 금리인하 등 양적완화정책 추진 가능성 제기로 전주말 대비 약세 (\$/€ : 1.3582→1.3526, ¥/\$: 95.94→98.71)

○ (국내 금융 시장) 원화와 주가 강세 지속

- **주가**: 美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뉴욕증시 강세와 美 연준의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대폭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1,170.9→1,237.5)
- **금리**: 기재부의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대한 수급 우려의 우세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 3.49%→3.74)
- **환율**: 지정부의 3월 무역수지 45억불 흑자 전망 등의 영향에 따른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 관련 달러 매도세에 힘입어 전주말 대비 큰 폭 하락 (1,412.5→1,349.0)

○ (전망) 원화 환율의 단기 급락으로 조정에 따라 약보합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3.20	3.271)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170.9	1,237.5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49	3.74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412.5	1,349.0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	7,278	7,924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7,945	8,636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2.63	2.74
	일국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27	1.32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3582	1.3526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95.94	98.71
	두바이(\$/배럴)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48.62	50.42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3.26) 기준.